



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하락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¹⁾은 전년 말대비 0.08%p 하락한 13.88%를 기록하였으며, Tier1 비율도 11.05%로 0.04%p 하락함.

- 이는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3조 4,000억 원에 달하였으나 바젤Ⅱ 개정안 시행에 따른 Stressed VaR²⁾ 도입으로 위험가중자산이 22조 3,000억 원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또한, 농협은행 출범에 따른 자본감소(-1조 5,000억 원)로 자기자본 증가가 축소되었으며, 대출 금도 7조 8,000억 원 증가함.

〈그림 1〉 BIS자기자본비율 및 Tier1 비율



자료: 금감원.

1)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함.

2) 과거기간 중 은행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연속된 12개월 기간의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은행 트레이딩 계정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예상액을 말함.

■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 가능성과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.

- 기업은행(11.53%)과 수출입은행(10.58%)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2%를 초과하고 있음.
- 특히, 씨티은행(16.44%), 신한은행(15.33%), 농협(15.15%), 산업은행(15.11%)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5%를 초과하고 있으며, Tier1비율도 12%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.

(2012년 3월 말 국내은행 BIS비율 현황, 금감원, 6/1)